

OpenChain-KWG Legal SG 3차 회의록

2024.2.14.(수) 작성자: 박정숙

1

개요

- 회의목적: OpenChain-KWG Legal SG 3차 회의
- 일시: 2024년 2월 14일(수) 15:00 ~ 17:20
- 장소: ETRI 서울사무소 소회의실1
- 참석자(총 27명, 가나다순)

김강보, 김기련, 김동혁, 김상미, 김시안, 김승우, 김진아, 김형진, 류창한, 박명헌, 박슬희, 박원재, 박은정, 박정숙, 신학철, 엄승광, 유원재, 윤석경, 이근찬, 이완근, 장학성, 전미진, 정윤환, 조민지, 주군호, 최소현, 홍종호

2

회의 주요 내용

세션	내용
Update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ORCRO의 OpenChain 기반 CMM 예 소개(Legal WG 동향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(제도화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) <p>[출처] Andrew Katz(ORCRO), "Open Chain Maturity Model: RoadMap", https://www.slideshare.net/slideshows/openchain-legal-work-group-20240117/266006703</p>
Introducing New Issue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SFC v. Vizio 현황 (OSBC 이완근 변호사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진행상황 확인: https://sfconservancy.org/copyleft-compliance/vizio.html- 기존에 미국법에서는 소송은 저작권자(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아)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, Vizio의 경우는 제3자(SFC)가 제기한 케이스임- 경과: 캘리포니아 주법원 → 연방대법원 → 캘리포니아 주법원(SFC의 원고적격 인정)- 평가: Vizio가 소스코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정하였음. 코드 공개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으로써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. 기업들로서는 예방할 필요성이 증가- 징벌적 손해 배상, 권리 경합- 특이사항: Vizio가 원저작자들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을 시, 공개의무 없음. 그러나, 원저작자들이 다수인 점 등 현 케이스에서는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	<p>- 라이선스보다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더 우선시될 수 있음</p> <p>[발표자료] 이완근(OSBC), "SFC v. Vizio Case", Legal SG 3차 회의 발표자료</p> <p>[참고자료] Luis Villa, "Will the new judicial ruling in the Vizio lawsuit strengthen the GPL?", January 16, 2024, https://blog.tidelift.com/will-the-new-judicial-ruling-in-the-vizio-lawsuit-strengthen-the-gpl</p> <p>[참고자료] 장학성, "SFC v. Vizio, GPL 소송 판결 걸할기", https://devocean.sk.com/blog/techBoardDetail.do?ID=163978.</p> <p>[주법원 판결문] https://sfconserancy.org/docs/Order_Denying_Vizio_Motion_for_Summary_Judgement_12-29-23.pdf</p> <p>○ 중국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송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여자(contributor)의 소송 가능성: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지만,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야 함 <p>[출처] 1)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, "오픈소스 코드 기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 사례", 2023.12.29, 해외사무소 뉴스 제2023-제111호.</p> <p>2)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, "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원고적격 인정", 2023.11.17., 해외사무소 뉴스 제2023-제95호.</p> <p>○ LF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보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컴플라이언스 도전 과제로 접근성, 투명성, 고급 기능세트, 확장성, 속도, 정확성, 감사가능성, AI 생성코드를 포함한 8가지 항목 제시 - 기관별로 보다 탄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본 보고서와 ORCRO의 CMM 예제를 적용하여 계획수립 및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<p>[출처] Ibrahim Haddad, "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: Challenges Ahead", January 2024, https://www.linuxfoundation.org/hubfs/LF%20Research/OpenSourceLicenseComplianceReport_010224.pdf?hsLang=en</p>
<p>Open Source Litigation Case Analysis</p>	<p>○ gpl-violations.org의 소송 사례 소개 (안랩 김강보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pl-violations.org는 주로 B2C 제품에 소송을 걸고, 제조사 소재 국가, 오픈소스 보호 강화된 국가, 저작권법이 발달된 국가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향 있음 - 분석에 사용된 분석보드와 오픈소스 바이너리 검증틀을 통해 주로 라이선스 위반 사실 밝혀냄. 대부분 제품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이 가능함 - 오픈소스 원저작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함 <p>Vizio 판결 이후, 위임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소송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송 종결 후 소스코드 공개한 기업의 매출을 분석해 보면, 코드 공개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가 향후 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침. 따라서, 오픈소스의 전략적 활용 및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 기업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란 판단 (VMware의 경우는 매출 증가함) <p>[발표자료] 김강보(안랩), "GPL-violations.org는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았나?", Legal SG 3차 회의 발표자료</p>
<p>Open Source License Analysis</p>	<p>○ GPL-3.0, AGPL-3.0 (ETRI 엄승광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PL-3.0 라이선스의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보다 상세한 분석 필요(TBD) <p>[발표자료] 엄승광(ETRI), "GPL의 발전: GPL-3.0, AGPL-3.0", Legal SG 3차 회의 발</p>

S	표자료
---	-----

3

차기 일정

○ '24.4.10.(수) 예정(매월 2주 수요일) → 22대 국회의원 선거(4.10.)로 일정 조정 필요